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조은주¹, 강정미^{*}, 임경민²

¹고신대학교 간호학과, ²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type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Eun-Joo Jo¹, Jung-Mi Kang^{*}, Kyoung-Min Lim²

¹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B시에 소재한 간호대학생 122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Scheff'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의 평균 평점 3.23점,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4점 만점의 평균 평점 2.71점,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의 평균 평점으로 3.63점이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정도는 건강상태($p<.001$), 대인관계($p=.001$), 전공만족도($p<.001$), 임상실습 만족도($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p=.028$)가, 셀프리더십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양의 상관관계($p<.001$)가 있었고,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건강상태, 스트레스 대처방식, 전공만족도이었다. 이중 건강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 설명력은 28.1%이었다($p<.00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가지는 것과 함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stress coping type on the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122 nursing students in B city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6 to May 13, 2015.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the t-test, ANOVA, Scheff'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self-leadership by health status ($p<.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001$),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p<.001$)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p=.002$). Self-leadership was negatively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stress ($p=.028$) and positively related to stress coping style ($p<.001$). The meaningful variables which influenced self-leadership were the health status, stress coping type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The total explanatory power was 28.1% and the health status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for them to maintain a good health condition and to have an effective stress coping type. In addition, methods are needed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students.

Keywords : Clinical practice stress,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tress coping type

*Corresponding Author : Jung-Mi Kang(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Tel: +82-10-5678-4634 email: kkm0738@naver.com

Received August 3, 2016

Revised (1st September 21, 2016, 2nd January 31, 2017, 3rd February 20, 2017)

Accepted March 10, 2017

Published March 31, 2017

1. 서론

간호교육의 목표달성에 임상실습은 필수적이며, 간호대학생들에게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간호이론을 실무현장에서 실제로 통합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창의력과 응용력을 길러주는 학습과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도나 만족도는 부정적이며 이론과 실습의 차이로 인한 혼돈, 비교육적인 실습환경, 대인관계에서의 경험부족, 단순한 간호실무의 반복, 전문지식의 부족 및 자신감 결여 등으로 실습 중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1,2]. 이러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때 간호대학생들은 긴장, 두려움, 불안, 피로, 분노 뿐 만 아니라 실습이 두려워지고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끼게 되는 심각한 위축과 좌절을 경험한다[3]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을 매개하는 핵심기제가 바로 대처인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여 사람과 환경 그 자체를 바꾸거나 정서적 고통을 조절하고 삶과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4,5]. Lazarus 와 Folkman[4]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개인이 취하는 대처행동을 문제 지향적 대처 행동과 정서 지향적 대처 행동으로 구분했으며, 대처를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사건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서 변화하는 지속적인 역동적 과정으로 보았다. 문제 지향적 대처는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할 때 주로 사용되고, 정서지향적 대처는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적다고 인식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대처방식은 효율성과 관계없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 스트레스 뿐 만 아니라 임상실습 등의 학업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간호대학생에게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셀프리더십은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위해 필요한 개인적인 개념으로 학습이나 교육으로 발전되고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자기관리의 내적부여 동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셀프리더십이 높은 사람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으로 업무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6,7].

최근 의료환경의 변화와 함께 간호조직도 간호전문성의 영역확대의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구성원들 스스로가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영향력을 발휘

1.1 연구의 필요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게 되었다. 셀프리더십은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스스로 목표 설정, 자기통제 등과 같은 자율성을 강조하고, 자기관리와 내적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으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6].

간호교육의 목표에는 전문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의 함양을 통해 간호실무능력을 높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간호교육의 현장에서 스스로 주도적이며 책임 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셀프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어 셀프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전략이 필요하다[8].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의 연구를 살펴보면 Park[9]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였다. Lee와 Yun[10]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셀프리더십의 유의한 예측요인이라고 하였다. Yang 과 Moon[11]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만족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Lee 등[12]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으며, 셀프리더십의 유의한 예측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고, Park 과 Han[13]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은 간호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해야 할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전략의 수립과 프로그램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약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셀프리더십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셀프리더십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란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간호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원으로서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불안·공포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14]. 본 연구에서는 Beck과 Srivastva[15]가 개발하고 Kim과 Lee[16]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1.3.2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결과에 상관없이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지된 개인과 환경간의 요구해결과 그로 인해 발생된 감정을 조절하려는 과정을 말한다[17].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17]이 개발한 도구를 Park[18]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1.3.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이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 등에 초점을 맞춘 자율성의 속성을 지닌 리더십을 말한다[19]. 본 연구에서는 Manz[19]가 개발한 도구를 Kim[20]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에 소재한 1개 대학의 재학생으로 임상실습 경험이 있고, 셀프리더십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4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1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임상실습 경험이 있고, 셀프리더십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간호학과 4학년 학급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자기기입법에 의해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 예견되는 잠재적 위험, 연구가 초래할 수 있는 불편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자의 연락처를 동의서에 기입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질문할 수 있음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설명하였다. 동의서에는 비밀보장, 익명성과 자발적 동의 및 참여거부 가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지정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보관하였고, 연구 자료는 연구 완료 3년이 지난 후 설문지는 분쇄기를 사용하여 파쇄할 것이고,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및 자료는 영구 삭제할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수를 계산하기 위해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 효과크기(f^2)를 중간크기인 0.15, 예측요인을 10개로 두어 산출하였을 때 최소표본의 크기는 118명이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총 130부를 배부하여 124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2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도구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24개 문항, 스트레스 대처방식 24개 문항, 셀프리더십 18개 문항, 일반적 특성 10개 문항 등 총 7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Beck과 Srivastva[15]가 개발하고 Kim 과 Lee[16]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교육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 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Kim 과 Lee[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3.2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도구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도구는 Lazarus와 Folkman[17]이 개발하고, Park[1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문제중심 대처 6문항,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6문항, 정서중심 대처 6문항, 소망적 사고 대처 6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는 적극적 대처로, 정서중심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는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였다. 본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많이 사용’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18]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2.3.3 셀프리더십 측정도구

셀프리더십을 측정도구는 Manz[19]가 개발하고 Kim[2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기대 3문항, 리허설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상 3문항, 자기비판 3문항, 건설적사고 3문항 등 6개 요인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는 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셀프리더십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및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셀프리더십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 하였다.
- 5)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여학생이 90.2%(110명), 종교는 “없음”이 28.7%(35명), 건강상태는 ‘좋음’이 58.2%(71명)로 가장 많았다. 대인관계는 ‘좋음’이 68.0%(83명),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26.2%(32명)로 가장 많았고,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59.8%(73명), 실습만족도에서는 ‘만족’이 41.8%(51명). 희망 진로는 ‘병원취업’이 76.2%(98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셀프리더십 정도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의 평균 평점 3.23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 실습업무부담 3.67점, 실습교육환경 3.50점,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3.32점, 대인관계갈등 2.83점, 환자와의 갈등 2.8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4점 만점의 평균 평점 2.71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소망적 사고 2.93점, 문제중심 대처 2.77점,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2.75점, 정서중심대처 2.4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의 평균 평점으로 3.63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자기보상 4.00점, 자기기대 3.82점, 리허설 3.70점, 목표설정 3.65점, 건설적 사고 3.36점, 자기비판 3.2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22)

| Variables | Classification | n | % |
|-----------------------------------|---------------------------------------|-----|------|
| Gender | Female | 110 | 90.2 |
| | Male | 12 | 9.8 |
| Religion | Yes | 35 | 28.7 |
| | No | 87 | 71.3 |
| Health status | Good | 71 | 58.2 |
| | Moderate | 51 | 41.8 |
|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Good | 83 | 68.0 |
| | Moderate | 39 | 32.0 |
| Entering Motivation | Considering high school record | 10 | 8.2 |
| | Recommendation of parents and teacher | 29 | 23.8 |
| | Employment | 29 | 23.8 |
| | Considering aptitude | 32 | 26.2 |
| | Professional etc. | 14 | 11.5 |
|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 Unsatisfied | 10 | 8.2 |
| | Moderate | 39 | 32.0 |
| | Satisfied | 73 | 59.8 |
|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 Unsatisfied | 21 | 17.2 |
| | Moderate | 50 | 41.0 |
| | Satisfied | 51 | 41.8 |
| Plans for after graduation | Hospital Nurse | 93 | 76.2 |
| | Governmental Officials etc. | 17 | 13.9 |
| | | 12 | 9.8 |

Table 2. Degre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coping type and Self-leadership

(N=122)

| Variables | Item no. | Mean±SD | Range | Average Mean±SD | Range |
|---|----------|-------------|--------|-----------------|-------|
| Clinical practice stress | 24 | 77.55±12.80 | 24-130 | 3.23± .53 | 1-5 |
| Practice environment | 5 | 17.50±3.38 | 5-25 | 3.50± .67 | 1-5 |
| Unexpected role model | 6 | 19.92±3.99 | 6-30 | 3.52± .66 | 1-5 |
| Burden of practice | 4 | 14.69±2.53 | 4-20 | 3.67± .63 | 1-5 |
| Confli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4 | 11.34±2.94 | 4-20 | 2.83± .73 | 1-5 |
| Conflict with patient | 5 | 14.08±3.60 | 5-25 | 2.81± .72 | 1-5 |
| Stress coping type | 24 | 65.27±7.71 | 24-96 | 2.71± .32 | 1-4 |
| Problem focused coping | 6 | 16.66±2.63 | 6-24 | 2.77± .43 | 1-4 |
| Seeking social support | 6 | 16.52±2.92 | 6-24 | 2.75± .48 | 1-4 |
| Emotional focused coping | 6 | 14.50±3.02 | 6-24 | 2.41± .50 | 1-4 |
| Wishful thinking | 6 | 17.58±2.35 | 6-24 | 2.93± .39 | 1-4 |
| Self-leadership | 18 | 65.52±7.20 | 18-90 | 3.63± .40 | 1-5 |
| Self expectation | 3 | 11.48±1.81 | 3-15 | 3.82± .60 | 1-5 |
| Rehearsal | 3 | 11.11±1.72 | 3-15 | 3.70± .57 | 1-5 |
| Goal setting | 3 | 10.97±1.70 | 3-15 | 3.65± .56 | 1-5 |
| Self reward | 3 | 12.02±1.55 | 3-15 | 4.00± .51 | 1-5 |
| Self criticism | 3 | 9.72±2.08 | 3-15 | 3.24± .69 | 1-5 |
| Constructive idea | 3 | 10.10±1.88 | 3-15 | 3.36± .62 | 1-5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셀프리더십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 종교 유무,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가 남자보다($p=.002$), 종교가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p=.039$), 임상실습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가 만족하거나 보통인 경우보다($p=.014$)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대인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25$). 대인관계가 보통인 군이 좋은 군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정도는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의 만족도, 임상실습의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평균이 67.78점으로 보통인 군(62.1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대인관계가 좋은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평균이 66.91점으로 보통인 군(62.28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67.47점으로 보통(62.58점)이거나, 불만족인 군(61.60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임상실습 만족도가 만족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68.07점으로 보통(63.66점)이거나 불만족한 군(63.23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2$)[Table 3].

Table 3. Degre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coping type and Self-leadership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2)

| Variables | Classification | Clinical practice stress | | Stress coping type | | Self-leadership | |
|-----------------------------------|---------------------------------------|----------------------------|---------------------------|--------------------------|------------------|--------------------------|--------------------------|
| | | Mean±SD | t(p) | Mean±SD | t(p) | Mean±SD | t(p) |
| Gender | Female | 78.71±12.20 | 3.142 (.002) | 65.20±7.86 | -.304 (.761) | 65.53±7.11 | .015 (.988) |
| | Male | 66.91±13.79 | | 65.91±6.51 | | 65.50±8.28 | |
| Religion | Yes | 81.31±12.28 | 2.084 (.039) | 65.25±7.69 | -.012 (.990) | 66.65±8.42 | 1.184 (.239) |
| | No | 76.01±12.76 | | 65.27±7.77 | | 64.94±6.70 | |
| Health status | Good | 76.45±11.69 | -1.128 (.262) | 65.70±7.82 | .731 (.990) | 67.78±7.27 | 4.569 (.000) |
| | Moderate | 79.09±14.16 | | 64.66±7.60 | | 62.15±5.84 |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Good | 75.94±12.24 | -.951 (.343) | 63.00±7.49 | -2.265 (.025) | 66.91±6.37 | -3.438 (.001) |
| | Moderate | 78.31±13.05 | | 66.33±7.63 | | 62.28±9.14 | |
| Entering Motivation | Considering high school record | 77.50±10.00 | .184 (.968) | 66.60±8.22 | .692 (.631) | 71.40±9.46 | 1.665 (.148) |
| | Recommendation of parents and teacher | 76.10±12.82 | | 63.17±7.82 | | 64.06±6.36 | |
| | Employment | 77.89±16.54 | | 65.86±7.95 | | 65.03±6.40 | |
| | Considering aptitude | 77.21±11.91 | | 65.37±8.01 | | 65.21±7.06 | |
| | Professional etc. | 79.64±9.16 79.37±11.98 | | 67.21±5.10 65.25±9.06 | | 65.85±7.48 64.50±8.99 | |
|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 Unsatisfied ^a | 81.70±15.69 | 1.802 (.169) | 61.90±9.17 | 1.618 (.203) | 61.60±9.41 | 8.180 (.000) a,b<c |
| | Moderate ^b | 74.61±12.51 | | 64.51±7.38 | | 62.58±7.21 | |
| | Satisfied ^c | 78.56±12.40 | | 66.13±7.62 | | 67.47±7.24 | |
|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 Unsatisfied ^a | 84.85±14.62 | 4.403 (.014) a> b,c | 65.00±8.11 | .607 (.546) | 63.23±7.14 | 6.37 (.002) a,b<c |
| | Moderate ^b | 75.66±11.90 | | 64.48±8.26 | | 63.66±7.29 | |
| | Satisfied ^c | 76.41±12.03 | | 66.15±7.02 | | 68.07±6.50 | |
| Plans for after graduation | Hospital Nurse | 77.01±11.17 | 1.802 (.169) | 64.75±7.79 | .896 (.411) | 65.13±7.24 | .741 (.479) |
| | Governmental Officials etc. | 75.47±11.90 76.41±12.03 | | 66.70±8.12 67.25±6.41 | | 65.52±8.44 68.10±5.68 | |

3.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계수가 나타났고($p=.028$), 셀프리더십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가 있었다($p<.001$),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양의 상관계수가 있었다 ($p<.001$),[Table 4].

3.5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중에서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를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명목척도인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

였다. 다중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회귀분석의 공차한계 값이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1.915 로 나타나 2 에 가까우므로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모형 Adj. R² 값은 .281로 측정변수들의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28.1%이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beta=.314$)로 설명력은 14.1%이었으며, 다음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beta=.284$),전공만족도($\beta=.238$) 순이었다[Table 5].

Table 4. Correlation among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coping type and Self-leadership (N=122)

| Variables | Clinical practice stress | Stress coping type | Self-leadership |
|--------------------------|--------------------------|--------------------|-----------------|
| | r(p) | r(p) | r(p) |
| Clinical practice stress | 1 | | |
| Stress coping type | .354(<.001) | 1 | |
| Self-leadership | -.200(.028) | .320(<.001) | 1 |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elf-leadership with Predictor variables (N=122)

| Variables | B | SE | β | t | p | Adj. R ² |
|-------------------------------|--------|-------|---------|--------|-------|---------------------|
| Constant | 52,432 | 5.149 | | 10.184 | <.001 | |
| Health status | 4.587 | 1.157 | -.314 | -3.964 | <.001 | .141 |
| Stress coping type | .267 | .073 | .284 | 3.649 | <.001 | .233 |
|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 3.497 | 1.173 | .238 | 2.98 | .003 | .281 |

Tolerance=0.936~0.980, VIF=1.021~1.068, Durbin-Watson=1.915, Adj. R²=.281, F=16.731, p<.001

Dummy variable: Health status 1=good, 0=moderate,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1=satisfied, 0=moderate, unsatisfied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평점 3.23 점(척도범위: 1-5)으로 중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도구로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Jo와 Lim[21]의 연구에서 3.40점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으며, 같은 도구로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과 Oh[22]의 연구에서 2.80점,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과 Kim[23]의 연구에서는 2.86점으로 나타난 결과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측정 도구와 대상자의 차이 및 연구기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분석은 어렵지만, 임상실습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졸업학년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보여 지며, 이는 실습기간 중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감정 등이 축적되어진 결과로 사료된다. 또 본 연구의 하위영역 중 실습업무부담 영역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졸업학년의 학생들은 취업을 앞두고 실습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업무가 곧 바로 겪게 될 자신들의 업무로 동일시하며 이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평균 평점 2.71점(척도범위: 1-4)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이는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4]의 연구에서 2.60점, 간호 대학생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Won[26]의 연구에서 3.4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 대학생 1,2,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Park[25]의 연구에서 2.30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 소망적 사고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24]과 Chu 등[2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소망적 사고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적인 대처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함으로써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행동을 의미한다. 소망적 대처는 현실을 회피하여 상상이나 소망, 기도 등을 통하여 좀 더 좋은 느낌 등을 가지는 것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스트레스 원인을 극복하는 능동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으로 인한 단기적인 스트레스 해결방법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방식으로서의 전환이 더욱 바람직하다. 따라서 문제해결형식의 교육방법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의 평균 평점 3.63점((척도범위: 1-5)으로 중간보다 높게 높았다. 이는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 대학생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Park 과 Han[13]의 연구에서 3.64점, Yang과 Moon[11]의 연구에서 3.72점의 결과와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대학생 1,2,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12]의 3.20점 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하위영역 중 성공적인 업무나 만족할 만한 일을 했을 때 스스로에게 유형과 무형의 보상을 하는 자기보상의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자기비판의 영역인 자신의 실패와 미숙하거나 서투른 과업의 수행에 대해선 비교적 관대하며 엄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와 Kim[10]의 연구와 Lee 등[12]의

연구에서 자기보상이 가장 높고, 자기비판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었다. 자기보상은 셀프리더십의 효과적인 행동전략의 하나로 긍정적인 행동을 더욱 강화시키며, 어렵거나 힘든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인간의 태도와 행위 변화를 유도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략으로 유용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다. 자기비판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의식적인 자기징계이며, 비판적 사고는 자기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보의 적용, 분석, 종합, 추론 및 효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간호사 양성이 목표인 간호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10].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자기비판의 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적 관점의 함양을 통해 실패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반복적인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태도와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학생포트폴리오의 작성과 과업이나 과제의 수행 시 성찰일지의 활용 등도 자기비판적인 셀프리더십을 함양하는 바람직한 교육방법이라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정도에서는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건강상태와 대인관계가 좋으며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군의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ang과 Moon[11]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학년,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Park과 Han[13]의 연구에서 건강상태, 대인관계, 종교, 간호학 선택동기 및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이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셀프리더십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3]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고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스트레스 대처방식, 전공만족도 순이었고, 전체 설명력은 28.1%이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셀프리더십이란 자신으로 하여금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어주는 자율적 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전인적인 건강증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신체적인 사항 뿐 만 아니라 정신적인 검진사항을 포함하여 건강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점검하여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내에 전문상담 교원을 배치하고 금연, 절주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의 배치 등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

간호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적 정서중심의 대처방식보다는 적극적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를 활용하는 교육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 수업을 통해 습득된 지식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이론과 실습의 연계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양한 교수방법의 개발을 통해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데, Lee와 Kim[10]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주도학습의 교육방법은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효율적인 교육방법 이므로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방법으로 문제해결학습, 역할극, 토론, 프로젝트법, 모의실험 등이 있으며 이들은 문제해결적인 교육적 성과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는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정도는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의 만족도, 임상실습의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셀프리더십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스트레스 대처방식, 전공만족도이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과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전인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와 시설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맞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교육훈련과 자기주도적인 교육방법의 개발과 적용을 통한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간호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개 대학의 간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References

- [1] J. W. Park, H. N. Seon,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 Ment Health Nursing*, Vol. 2, no. 1, pp. 27-35, 2003.
- [2] M. Y. Park, S. Y. Kim,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6, no. 1, pp. 23-25, 2000.
- [3] M. A. Park, "Self-leadership,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yle in Nursing Students", A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9.
- [4] Lazarus, R. S., & folkman, S. "A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 pub, 1984.
- [5] S. H. Nam, "A Study on Stress in Practice and Coping Style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Types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008.
- [6] G. A. Seomun, S. O. Chang, K. H. Cho, I. A. Kim, S. J. Lee, "The 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Outcome of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2 no. 1, pp. 151-158, Mar. 2006.

- [7] Y. S. Kang, Y. J. Choi, I. J. Kim, "A Study on Nurses's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pp. 143-151, 2010.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0.16.2.143>
- [8] H. J. Park, "Correlation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227-236, 2015.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227>
- [9] M. A. Park, "Self-Leadership,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Nursing Students", College of Nursing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009.
- [10] S. Y. Lee, Y. Y. Kim,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 309-318,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3.309>
- [11] N. Y. Yang & S. Y. Moon "Relation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2, pp. 216-225, 2011.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1.17.2.216>
- [12] S. Y. Lee, S. Y. Jeon, Y. Y. Kim, "The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10, no. 1, pp. 155-165, 2016.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6.10.1.155>
- [13] H. S. Park, J. Y. Ha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6, no. 3, pp. 695-706, 2015.
DOI: <https://doi.org/10.7465/jkdi.2015.26.3.695>
- [14]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205-213, 2006.
- [15] Beck, D. L., & Srivastva, R.,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0, no. 3, pp. 127-133, 1991.
- [16] S. L. Kim &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 1, pp. 98-106, 2005.
- [17] Lazarus, R. S., & Folkman, S., "A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 pub, 1984.
- [18] J. Y.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haracter Type A & B Ego-identity and Stress Coping", Sookmyeong Women's University Seoul, 1995.
- [19] Manz, C. C, "The Aart of Self-leadership :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New Jersey: Prentice Hall In, 1983.
- [20] H.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Teac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2002.
- [21] E. J. Jo & K. M. Lim,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ommunication skills on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7, no. 6, pp. 618-628, 2016.
DOI: <http://doi.org/10.5762/KAIS.2016.17.6.618>
- [22]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 of the Clinical Practic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2013.
- [23] G. O. Park, Y. S. Kim,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elf-concept,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4(B), pp. 2149-2163. 2013. no. 12, pp. 417-426, 2014.
- [24] J. H. Kim,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of Nursing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2, pp. 409-415, 2014.
DOI: <https://doi.org/10.14400/JDC.2014.12.2.409>
- [25] P. N.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Type and Self-esteem between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29, no. 1, pp. 1-10, 2016.
DOI: <https://doi.org/10.15434/kssh.2016.29.1.1>
- [26] H. J. Won,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9, no. 1, pp. 123-131. 2015.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5.9.1.123>
- [27] M. S. Chu, Y. R. Lee, S. H. Kim, "Nursing Students' Stress Level, Source and Coping",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vol. 19 no. 2, pp. 195-203, 2012.

조 은 주(Eun-Joo Jo)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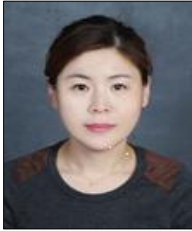
- 2000년 8월 : 고신대학교 보건학원 보건과학과 (보건학석사)
- 2004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보건학박사)
- 2005년 1월 ~ 2007년 12월 : 한국 보건교육협의회 부산지부 사무국장
- 2012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보건교육, 국제간호, 간호선교

임 경 민(Kyoung-Min Lim)

[정회원]



- 2008년 9월 : 고신대학교 보건과학
과(의료경영 전공) 석사
- 2012년 2월 : 고신대학교 보건과학
과(의료경영 전공)박사
- 2016년 3월 : 고신대학교 간호학
박사 과정
- 2015년 3월 ~ 현재 : 춘해보건대
학교(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학, 간호인사관리, 의료경영, 의료서비스 마케팅

강 정 미(Jung-Mi Kang)

[정회원]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7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과정
- 2017년 3월 ~ 현재 : BHS한서병
원 간호부 팀장

<관심분야>

간호관리, 아동간호, 환자안전